

ISSN: 2800-051X

Hankook |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62-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5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종교갈등 인식

2026. 1. 7.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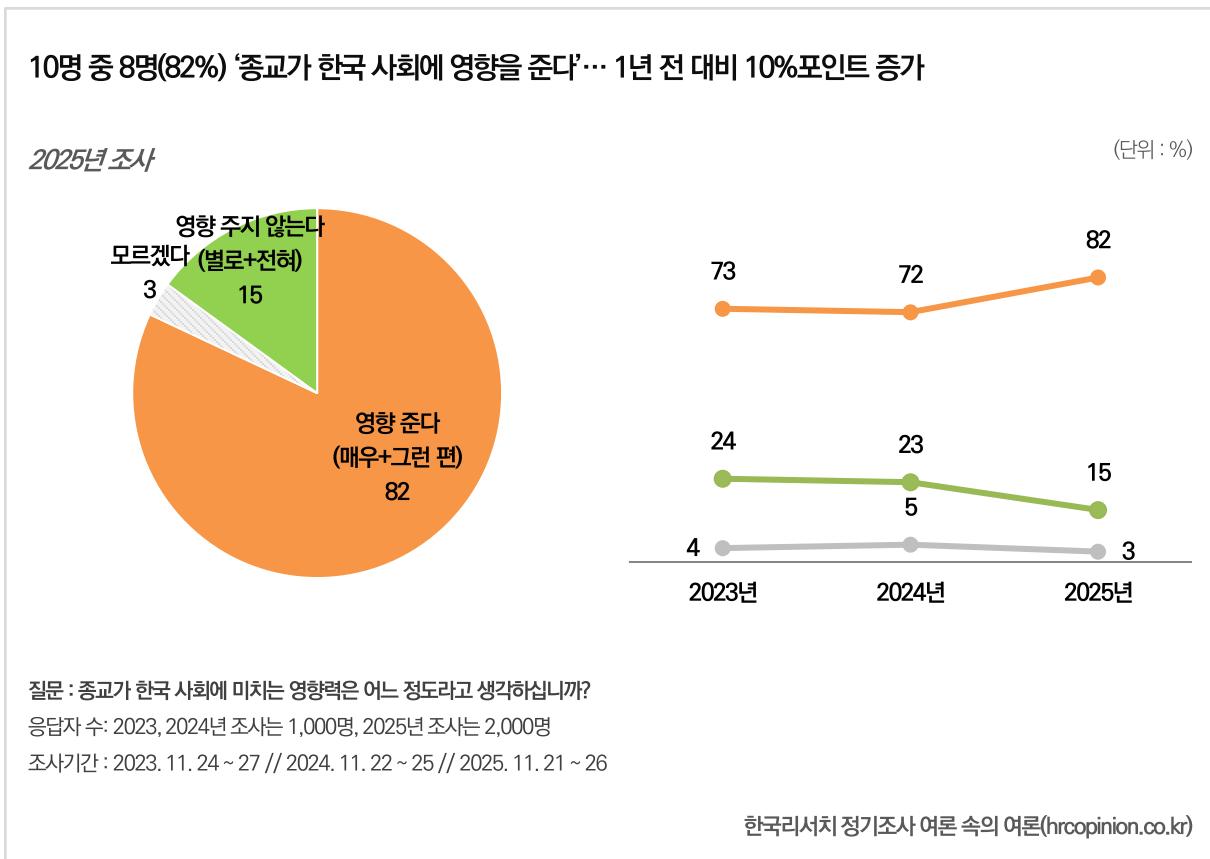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10명 중 8명(82%)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 1년 전 대비 10%포인트 증가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영향을 준다(매우+그런 편)'는 응답이 82%, '영향을 주지 않는다(별로+전혀)'는 응답이 15%, '모르겠다'는 응답이 3%로, 10명 중 8명이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다.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2023년 73%, 2024년 7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 82%로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2023년 24%, 2024년 23%에서 2025년 15%로 8%포인트 감소했다.



성별, 세대,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인식 상승 60대에서 지난해 대비 22%포인트 상승(66% → 88%)

성별과 세대, 믿는 종교 등과 관계없이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지난해 대비 높아졌다. 남성은 72%에서 81%로 9%포인트, 여성은 72%에서 82%로 10%포인트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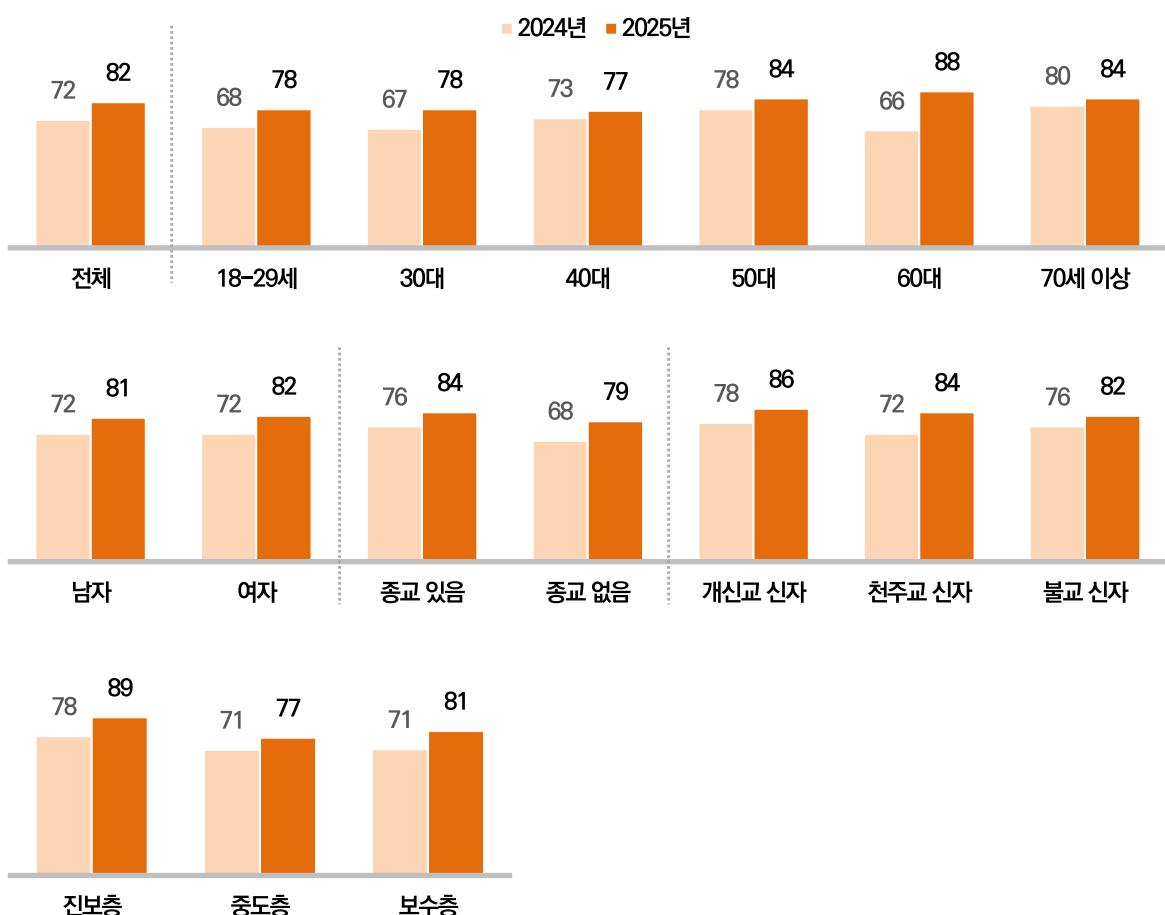
세대별로는 60대가 66%에서 88%로 22%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18~29세(68%→78%)와 30대(67%→78%)는 각각 10%포인트, 11%포인트 높아졌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76%에서 84%로 8%포인트, 종교가 없는 사람도 68%에서 79%로 11%포인트 상승해,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종교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종교별로는 천주교 신자가 72%에서 84%로 12%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개신교 신자(78%→86%), 불교 신자(76%→82%)도 각각 8%포인트, 6%포인트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이 78%에서 89%로 11%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고, 보수층(71%→81%)도 10%포인트 상승했다. 성별이나 세대, 종교 유무 등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인정하고 있다.

성별이나 세대, 종교 유무 등과 관계없이 최소 4명 중 3명이 ‘종교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 인식하는 가운데 60대에서 지난해 대비 22%포인트 상승

영향을 준다(매우+그런 편) 응답 (단위 : %)



질문 :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영향을 준다(매우 + 그런 편) 응답

응답자 수: 2024년 조사는 1,000명, 2025년 조사는 2,000명

조사기간 : 2024. 11. 22 ~ 25 // 2025. 11. 21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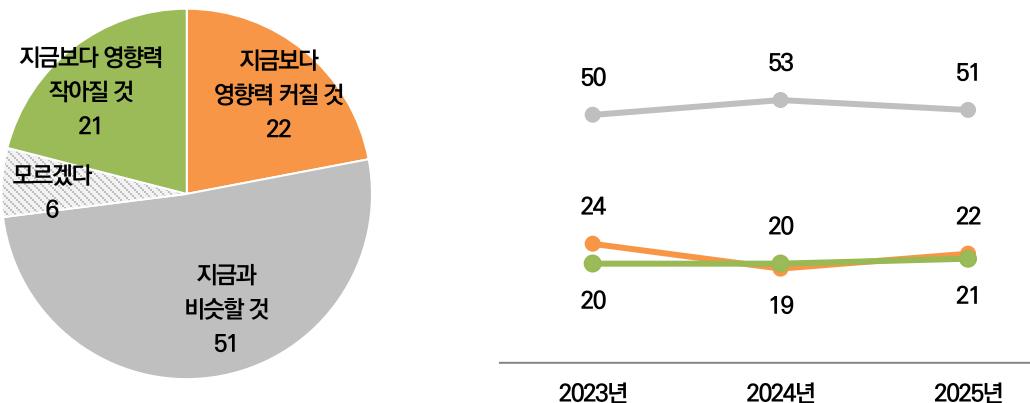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지금과 비슷할 것 51%, 영향력 커질 것 22%, 작아질 것 21%

앞으로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차지했고, '지금보다 영향력 커질 것'이 22%, '지금보다 영향력 작아질 것'이 21%, '모르겠다'가 6%이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작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비슷한 수준이며,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인식이 다수이다. 2023년 이후 인식의 변화는 크지 않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지금과 비슷할 것 51%, 영향력 커질 것 22%, 작아질 것 21%

(단위 : %)

2025년 조사



질문 : 앞으로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응답자 수: 2023, 2024년 조사는 1,000명, 2025년 조사는 2,000명

조사기간 : 2023. 11. 24 ~ 27 // 2024. 11. 22 ~ 25 // 2025. 11. 21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종교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것은, [종교 인구 비율이 큰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특히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수가 종교의 영향력을 인정한 점은, 종교계 외부에서도 종교의 영향력을 크게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가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간 것이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증가가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교,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와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고, 개신교 호감도는 이념성향에 따른 분화도 확인](#)되었다. 또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은 22%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성별이나 연령대,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종교가 앞으로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 지난해와 큰 차이 없어**

(단위 : %, %p)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지금보다 커질 것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지금과 비슷할 것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지금보다 작아질 것		
	차이 '24년 '25년 (25년- 24년)			차이 '24년 '25년 (25년- 24년)			차이 '24년 '25년 (25년- 24년)		
	전체	19	22	+3	53	51	-2	20	21
성별									
남자	21	21	0	49	49	0	23	25	+2
여자	18	24	+6	57	53	-4	16	16	0
연령									
18~29세	17	22	+5	49	52	+3	20	20	0
30대	21	19	-2	54	53	-1	16	20	+4
40대	16	21	+5	57	52	-5	15	21	+6
50대	24	26	+2	51	46	-5	21	21	0
60대	22	23	+1	52	49	-3	23	25	+2
70세 이상	17	22	+5	57	55	-2	24	19	-5
종교 유무									
믿는 종교 있음	22	23	+1	52	51	-1	22	21	-1
믿는 종교 없음	17	21	+4	54	50	-4	18	20	+2
현재 믿는 종교									
개신교	26	24	-2	45	47	+2	26	25	-1
천주교	20	25	+5	58	53	-5	19	18	-1
불교	17	21	+4	58	57	-1	21	18	-3
종교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영향 준다	24	25	+1	56	50	-6	19	21	+2
영향 주지 않는다	9	10	+1	51	58	+7	29	22	-7
모르겠다	4	3	-1	25	29	+4	0	8	+8

질문 : 앞으로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응답자 수: 2024년 조사는 1,000명, 2025년 조사는 2,000명

조사기간 : 2024. 11. 22 ~ 25 // 2025. 11. 21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hrcopinion.co.kr)

2 성직자·종교 지도자의 사회 참여

**성직자·종교 지도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침해 문제 해결 참여에는 다수가 동의
반면 정치 갈등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은 10명 중 3명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 없어**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의 사회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83%로 가장 높고,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가 72%,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가 67%로 뒤를 잇는다. '우리 사회 갈등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62%,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58%이다. 반면 '정치적 갈등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로, 10명 중 3명만이 동의한다. 종교계의 사회 참여는 원하지만, 정치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인식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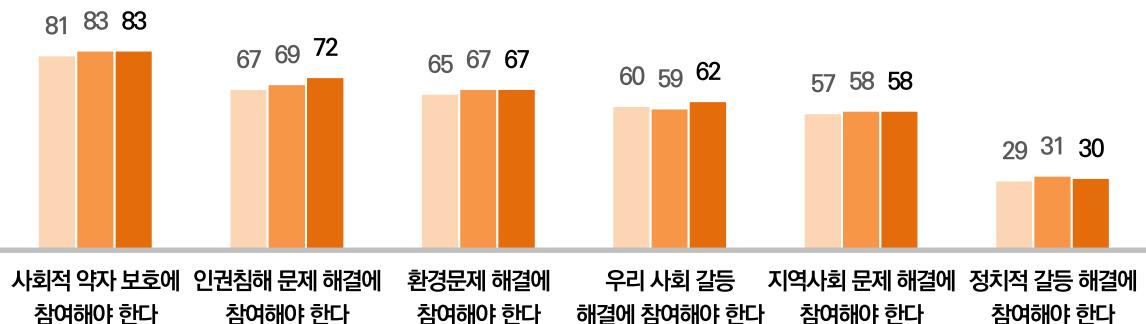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2023년 81%에서 2025년 83%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은 67%에서 72%로 소폭 상승했다. 정치적 갈등 해결 참여에 대한 동의는 2023년 29%, 2024년 31%, 2025년 30%로 3년간 3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성직자·종교 지도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는 다수가 동의
반면 정치 갈등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은 10명 중 3명**

(단위 : %)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은...

■ 2023년 ■ 2024년 ■ 2025년



질문 :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동의하는 편이다' 응답

응답자 수: 2023, 2024년 조사는 1,000명, 2025년 조사는 2,000명

조사기간 : 2023. 11. 24 ~ 27 // 2024. 11. 22 ~ 25 // 2025. 11. 21 ~ 26

진보층, 믿는 종교 있는 사람이 성직자·종교 지도자의 사회 참여 필요하다는 인식 강해 종교가 나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참여 필요성 인식 강해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에서 성직자·종교 지도자의 사회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다. 진보층은 사회적 약자 보호(91%), 인권침해 문제 해결(81%), 환경문제 해결(74%), 우리 사회 갈등 해결(71%), 지역사회 문제 해결(66%)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도층이나 보수층보다 높은 동의를 보인다. 다만 정치적 갈등 해결 참여에 대해서는 진보층에서도 34%만이 동의한다.

또한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성직자·종교 지도자의 사회 참여를 강하게 요구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종교가 있는 사람 86% vs 종교가 없는 사람 80%)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문제 해결(78% vs 66%), 환경문제 해결(72% vs 62%), 사회 갈등 해결(67% vs 57%), 지역사회 문제 해결(64% vs 53%) 등에서도 종교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동의한다. 정치적 갈등 해결에 대해서도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은 36%가 성직자·종교 지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해,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26%) 대비 높다.

종교가 자신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직자·종교 지도자의 사회 참여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종교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사람 중 89%가 사회적 약자 보호 참여에 동의한 반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81%가 동의했다. 인권침해 문제 해결(81% vs 68%), 환경문제 해결(76% vs 62%), 우리 사회 갈등 해결(71% vs 58%)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차이는 더욱 크다. 사회적 약자 보호 참여에 대한 동의는 각각 88%와 69%로 19%포인트 차이가 나고, 우리 사회 갈등 해결(67% vs 45%), 지역사회 문제 해결(62% vs 44%) 등에서도 20%포인트 가까운 격차가 확인된다.

**진보층, 믿는 종교 있는 사람이 성직자·종교 지도자의 사회 참여 필요하다는 인식 강해
종교가 나의 삶,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식 강해**

(단위 : %)

사례수 (명)	성직자 및 종교 지도자들이 …에 참여해야 한다(매우 동의+동의하는 편)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환경문제 해결에	우리 사회 갈등 해결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정치적 갈등 해결에
전체 (2,000)	83	72	67	62	58	30
성별						
남자 (992)	82	72	63	63	56	31
여자 (1,008)	84	71	71	61	61	30
연령						
18~29세 (301)	79	70	60	62	62	31
30대 (299)	74	61	60	54	51	25
40대 (343)	80	64	59	55	54	26
50대 (389)	90	78	75	69	63	33
60대 (354)	85	77	70	65	59	36
70세 이상 (314)	87	77	73	65	59	30
이념성향						
진보층 (606)	91	81	74	71	66	34
중도층 (707)	79	66	63	56	53	26
보수층 (630)	81	71	65	62	58	33
종교유무						
종교 있음 (998)	86	78	72	67	64	35
종교 없음 (1,002)	80	66	62	57	53	26
현재 믿는 종교						
개신교 (407)	87	79	73	69	70	36
천주교 (254)	88	83	73	70	66	35
불교 (302)	84	74	70	64	56	31
종교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영향을 준다 (745)	89	81	76	71	68	38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61)	81	68	62	58	54	26
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영향을 준다 (1,633)	88	76	71	67	62	32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2)	69	56	52	45	44	28

질문 :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동의하는 편이다' 응답

응답자 수: 2,000명

조사기간 : 2025. 11. 21 ~ 26

3 우리 사회 종교갈등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 종교갈등 심각하다 62%, 1년 전 대비 9%포인트 증가 향후 종교갈등 전망은 '자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 51%,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 30%

종교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종교갈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물었다. '심각하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62%, '심각하지 않다(전혀+별로)'는 응답이 33%, '모르겠다'는 응답이 5%로, 10명 중 6명이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이 심각하다고 본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심각하다는 응답은 53%에서 62%로 9%포인트 상승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39%에서 33%로 6%포인트 감소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도 물었다.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차지했고,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 30%,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 12%, '모르겠다'가 7%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23%에서 30%로 7%포인트 상승했고,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은 56%에서 51%로 5%포인트 감소했다.

성별, 세대 등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 종교갈등 심각하다는 인식이 과반 차지 진보층에서는 69%가 우리 사회 종교갈등 심각하다고 인식, 중도나 보수층 대비 높아

남성(60%)과 여성(64%) 모두 10명 중 6명 정도가 우리 사회 종교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세대별로는 18~29세(53%)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종교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60% 내외 수준을 보인다. 또한 진보층(69%)에서 종교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중도층(59%)과 보수층(58%) 대비 높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사람(67%)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사람(41%)보다 종교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26%포인트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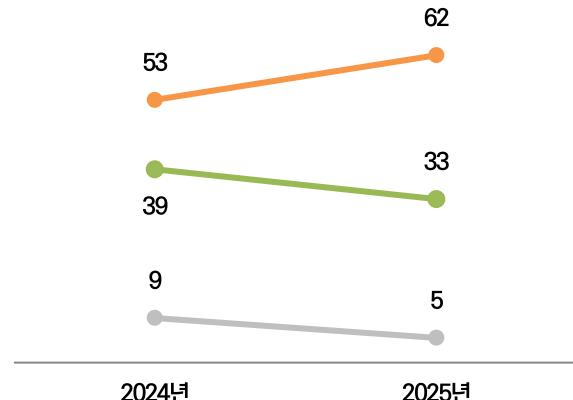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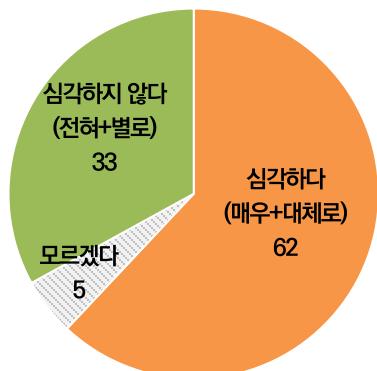
현재 종교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 중에서는 44%가 앞으로 종교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44%는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9%에 그친다. 반면 현재 종교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 중에서는 67%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사람 중에서는 33%가 종교갈등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사람 중에서는 20%만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종교갈등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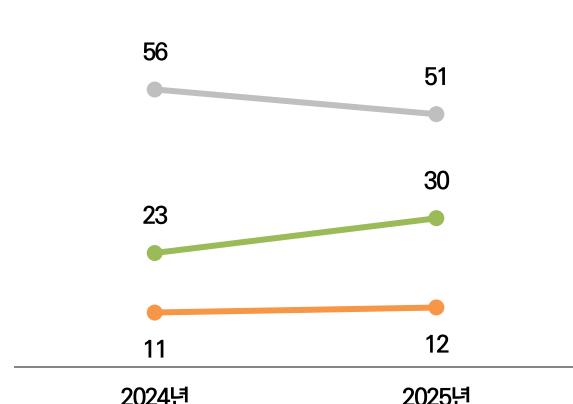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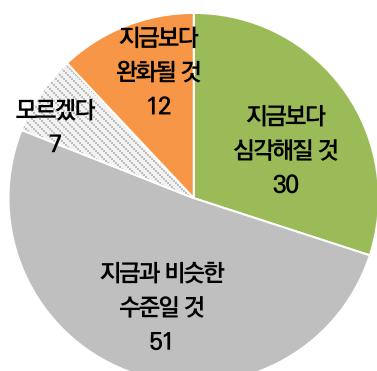
우리 사회 종교갈등 심각하다 62%, 1년 전 대비 9%포인트 증가
향후 종교갈등 전망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 51%,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 30%

(단위 : %)

우리 사회 종교갈등(2025년)



앞으로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2025년 조사)



질문 : (우리사회 종교갈등 평가)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 정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사회 종교갈등 전망) 앞으로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응답자 수: 2024년 조사는 1,000명, 2025년 조사는 2,000명

조사기간 : 2024. 11. 22 ~ 25 // 2025. 11. 21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성별, 세대 등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 종교갈등 심각하다는 인식이 과반 차지
진보층에서는 69%가 우리 사회 종교갈등 심각하다고 인식, 중도나 보수층 대비 높아**

(단위 : %)

사례수 (명)	우리 사회 종교갈등은…			앞으로 우리 사회 종교갈등은…			
	심각하다 (매우+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별로 +전혀)	모르겠다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	지금보다 완화될 것	모르겠다
전체 (2,000)	62	33	5	30	51	12	7
성별							
남자 (992)	60	35	5	32	49	12	6
여자 (1,008)	64	30	6	29	52	11	8
연령							
18~29세 (301)	53	37	11	30	48	9	13
30대 (299)	66	28	6	28	51	11	10
40대 (343)	59	34	7	28	52	12	8
50대 (389)	64	30	5	29	50	13	7
60대 (354)	64	34	2	37	49	10	4
70세 이상 (314)	65	33	2	29	55	13	4
이념성향							
진보층 (606)	69	27	4	33	49	13	5
중도층 (707)	59	33	8	26	52	12	10
보수층 (630)	58	39	3	31	53	10	5
종교 유무							
믿는 종교 있음 (998)	64	34	2	30	52	13	5
믿는 종교 없음 (1,002)	60	32	8	31	50	10	10
현재 믿는 종교							
개신교 (407)	65	32	3	33	47	13	7
천주교 (254)	65	34	1	28	56	12	4
불교 (302)	61	37	2	28	56	13	3
우리사회 종교 갈등 인식							
심각하다 (1,242)	-	-	-	44	44	9	3
심각하지 않다 (651)	-	-	-	9	67	18	6
모르겠다 (107)	-	-	-	5	29	4	62
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영향을 준다 (1,633)	67	29	3	33	51	11	4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2)	41	52	7	20	53	15	12

질문 : (우리사회 종교갈등 평가)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 정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사회 종교갈등 전망) 앞으로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응답자 수: 2,000명

조사기간: 2025. 11. 21 ~ 26

종교갈등 심각하고, 향후 악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 27%, 1년 전 대비 8%포인트 증가 현재 갈등 심각하고, 앞으로 비슷한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28%

우리 사회 종교갈등에 대한 현재 인식과 향후 전망을 조합해 살펴보았다. '현재 갈등이 심각하고,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는 사람이 28%, '현재 갈등이 심각하고, 향후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27%로 엇비슷하다. 이를 더하면, 현재 종교갈등이 심각하며, 향후에도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전체의 55%로 절반을 넘는다. '현재 갈등이 심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비슷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2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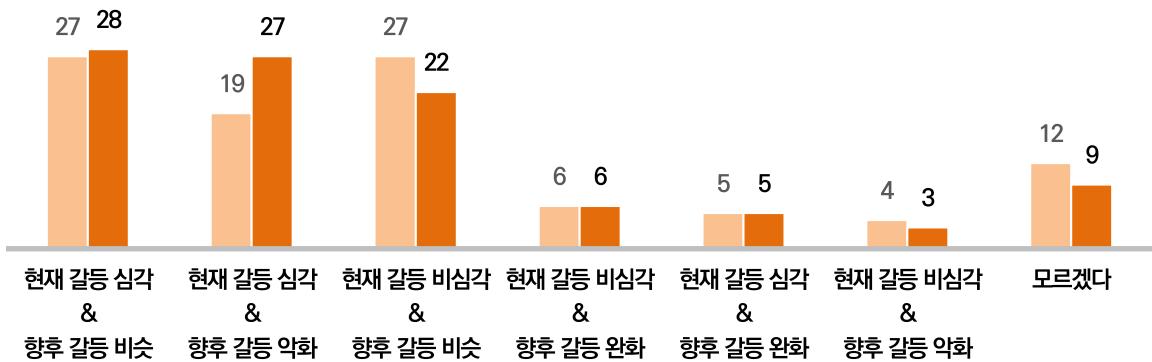
지난해와 비교하면 '현재 갈등 심각 & 향후 악화'는 19%에서 27%로 8%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갈등 심각 & 향후 비슷'은 27%에서 2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현재 갈등 심각하지 않음 & 향후 비슷'이라는 낙관적인 인식은 27%에서 22%로 5%포인트 감소했다. 종교갈등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커진 것이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종교갈등에 대한 우려가 강하다. 종교가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사람 중에서는 '현재 갈등 심각 & 향후 비슷'이 30%, '현재 갈등 심각 & 향후 악화'가 30%로 총 60%가 현재 갈등이 심각하면서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사람 중에서는 '현재 갈등 심각하지 않음 & 향후 비슷'이 31%로 가장 많고, '현재 갈등 심각 & 향후 비슷(19%)'과 '현재 갈등 심각 & 향후 악화(15%)'는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 사회 종교갈등 심각하고, 향후 악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 27%, 1년 전 대비 8%포인트 증가 현재 갈등 심각하고, 앞으로 비슷한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28%

(단위 : %)

■ 2024년 ■ 2025년



질문 : (우리사회 종교갈등 평가)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 정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사회 종교갈등 전망) 앞으로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응답자 수: 2024년 조사는 1,000명, 2025년 조사는 2,000명

조사기간 : 2024. 11. 22 ~ 25 // 2025. 11. 21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hrcopinion.co.kr)

종교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종교갈등에 대한 우려도 강해

(단위 : %)

사례수 (명)	현재 갈등 심각 & 향후 갈등 비슷	현재 갈등 심각 & 향후 갈등 악화	현재 갈등 비심각 & 향후 갈등 비슷	현재 갈등 비심각 & 향후 갈등 완화	현재 갈등 심각 & 향후 갈등 완화	현재 갈등 비심각 & 향후 갈등 악화	모르겠다
전체 (2,000)	28	27	22	6	5	3	9
성별							
남자 (992)	26	28	23	7	5	4	8
여자 (1,008)	29	26	21	5	6	2	11
연령							
18~29세 (301)	23	24	22	7	2	5	17
30대 (299)	32	25	17	6	5	2	12
40대 (343)	26	24	24	5	7	3	10
50대 (389)	29	26	20	6	7	3	8
60대 (354)	25	35	23	6	4	2	5
70세 이상 (314)	31	27	23	7	6	2	4
이념성향							
진보층 (606)	30	31	18	6	7	2	6
중도층 (707)	28	23	22	6	5	3	13
보수층 (630)	26	27	27	6	4	4	7
종교유무							
종교 있음 (998)	29	27	22	7	6	3	6
종교 없음 (1,002)	26	27	21	5	5	3	13
현재 믿는 종교							
개신교 (407)	26	29	21	6	7	4	8
천주교 (254)	32	24	24	6	6	4	4
불교 (302)	29	26	25	8	5	2	4
종교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영향을 준다 (745)	30	29	19	7	7	2	5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61)	27	26	24	6	4	3	10
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영향을 준다 (1,633)	30	30	20	5	6	3	6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2)	19	15	31	10	4	5	15

질문 : (우리사회 종교갈등 평가)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사회 종교갈등 전망) 앞으로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응답자 수: 2,000명

조사기간 : 2025. 11. 21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종교갈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확인된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72%에서 82%로 10%포인트, 종교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53%에서 62%로 9%포인트 상승했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사람 중 60%가 현재 종교갈등이 심각하며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종교의 영향력 증가가 사회 통합보다는 갈등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10월 기준 약 97만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2,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2\%$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69,849명, 조사참여 3,789명, 조사완료 2,000명 (요청대비 2.9%, 참여대비 52.8%)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11월 21일 ~ 11월 26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 Research

